

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급성 신부전이 합병된 독시라민 중독증 1예

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이상희 · 박근호 · 이선영 · 송준호 · 이승우 · 김문재

서 론 : 독시라민 (Doxylamine succinate)은 수면제로 흔히 처방되고 있는 Ethanolamine 그룹에 속하는 항히스타민 제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살의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. 최근 저자들은 독시라민 2,500 mg 이상을 음복한 후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 혈액 투석 시행 후에도 빠른 교정이 되지 않았던 환자를 경험하여 보고 한다.

중 례 : 36세 남자가 내원 24시간 전 독시라민 2,500 mg을 음복한 후 혼미한 의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환자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자로 이학적 소견상 혼미한 의식 상태를 보이며, 혀와 입술은 건조하여 있었다. 검사실 소견상 백혈구 23,500/uL, 혈액요소질소 15 mg/dL, 크레아티닌 3.32 mg/dL로 증가 되어 있었으며, CPK >100,000 IU/L, 미오글로빈 719 ng/mL이었고, 골주사 상 전신 근육의 광범위한 섭취가 확인 되었다. 충분한 수액 공급 등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췌노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부종의 악화로 인하여 제 3병일째부터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으며, 이후에도 급성 신부전 상태 호전되지 않아 3주간의 투석 치료가 필요하였으며, 제 25병일을 마지막으로 이뇨기로의 이행과 크레아티닌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어 투석을 중단하고 퇴원하였으며,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.